

“중소 상생금융지수, 4대 은행부터 도입... 전 기관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상생금융지수 토론회

중소기업계에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수를 국민·하나·신한·우리를 중심으로 한 ‘4대 금융지주’부터 시작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위원회의 ‘상생금융 실적평가’(60%)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금융 종합평가’(40%)를 합해 발표하는 방식이 아이디어로 나왔다.

금융위가 은행별 관련 실적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고, 동반위는 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정성평가)와 은행별 실적평가(정량평가)를 병행하는 구조다.

상생금융지수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미흡)의 5단계로 평가해 최우수(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동반성장지수와 사실상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식이다.

다만 중소기업계의 의지와 달리 상생금융지수를 실제 도입·적용하는 과정에서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권의 조직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벤처기업정책학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벤처기업학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왼쪽 3번째부터)한정화 한양대 교수,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김도성 중소기업정책학회 회장, 임채운 서강대 교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금융위원회 실적평가 60%에 동반위 평가 40% 합산방식 제시 도입과정 금융권 반발 거셀 듯

“본질은 은행-중소의 동반성장 美·日·獨 등은 ‘관계금융’ 정착 정착엔 중소기업 고질적 자금난 해소”

회에서 나왔다. 토론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강대 임채운 교수는 “상생금융의 본질은 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방식 변화를 유도해 은행 독점이익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은행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사회공헌활동과 구분되는 중소기업 대상의

상생금융 방안을 지수화해 도입·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상생금융’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상생금융 범위를 포용금융, 성장금융, 혁신금융으로 구분해 이를 지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이 정착해 있다. 관계금융이란 은행이 돈을 빌리는 차주와 장기 거래관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한 정성적 정보를 대출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임 교수는 “국가마다 금융시스템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 관계금융으로 진화해 왔다. 상생금융은 관계금융으로 발전해가는 지름

길”이라며 “우리나라도 현재의 단기적 거래금융이 장기적 관계금융으로 발전해야 진정한 상생금융이 정착되고 중소기업의 고질적 자금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발표자로 나선 서울여대 노용환 교수는 ‘은행경영실태 평가(CAMEL-IR 지수평가)’가 은행 건전성 훼손에 대한 지나친 우려 때문에 은행과 중소기업의 상생금융을 통한 동반성장기여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교수는 “금융감독을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현행 시스템은 금융기관의 공공성 기준은 미흡하다”며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 실적을 ‘CAMEL-IR 지수평가’에 반영해 은행의 경영건전성과 공공성의 역할 균형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 교수 역시 은행의 사회공헌을 상생금융과 별도로 평가하되 상생금융은 금융부담 경감(포용금융), 3년 이상의 시설자금 대출(성장금융), 기술가치 담보 대출(혁신금융) 등을 모두 아우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용금융엔 ▲이자감면 ▲금리환급액 ▲수수료 감면 ▲보증부기업대출금 등, 성장금융엔 ▲신용대출 비중 ▲장기대출 비중 ▲이익공유형 대출 등이, 그리고 혁신금융엔 ▲기술신용대출 비중 ▲지적재산권(IP), 동산·채권담보, 일괄담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반영비율은 성장금융이 50%로 가장 많고, 포용금융 30%, 혁신금융 20%씩이다.

노 교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시 사회공헌, 성장금융 노력, 혁신금융 노력·실적, 중소기업 전용 금융상품 구비, 중소기업 여신심사 전용 체계 구축 등은 ‘가점’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미준수, 불건전 영업행위, 동반성장에 반하는 위반 행위 등은 ‘감점’을 각각 부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에 진행된 종합토론회에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 강영수 은행과장은 “왜(오늘)토론회에 관계자인 은행이 없을까 궁급하다. 당사자인 은행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또(상생금융지수)도입 아이디어에서 나온 인센티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지수를 만들어 놓으면 잘 작동하든, 그렇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칫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특히 은행은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수가 은행의 건전성에 순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지수가 정부의(금융 관련)정책을 평가하는지, 상충되는지도 알 수 없다. 본질적 문제를 감안해 보다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등 정치권에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글로벌 팁스 신설... 운영사 모집

3년간 최대 6억 해외진출 자금 지원 20곳 선정... 비수도권 투자사 가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획자, 초기 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모집한다. 올해엔 25개 안팎을 선정할 예정이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팁스를 통해 해외 VC로부터 20만 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6억원의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엔 2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19일부터 4월16일까지 진행되는 팁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스 운영사 선정은 딥테크 분야의 창업 지원 강화 및 비수도권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10대 초격차 분야에 투자 역량을 보유한 투자사 및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투자사에게 가점을 준다.

또 팁스의 전·후방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시드트랙) 운영사 및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실적은 부족하지만 역량

을 보유하고 있는 초기 창업기획자 및 지역 투자사의 팁스 운영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선정규모의 20%(약 5개사) 내외를 예비 운영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예비 운영사는 2년간 일반형 운영사에 주어지는 추천권의 50% 수준을 부여 받고, 이후 전환평가를 통해 일반형 운영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팁스 운영사는 현재 총 104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팁스는 중기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지금까지 팁스를 통해 지원받은 2700여개 가량의 스타트업이 총 13조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김승호 기자

소진공,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생 모집

단국대 등 전국 15개 대학과 협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18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13일 2024년 디지털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15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 특성화대학은 ▲수도권 5곳(단국대, 서정대, 유한대, 을지대, 청운대) ▲충청권 3곳(건양사이버대, 남서울대, 서원대) ▲영남권 4곳(경남대, 계명대, 대구

한의대, 동명대) ▲호남권 3곳(광주대, 국립목포대, 전주대)을 선정했다.

교육에선 온라인플랫폼업점 및 마케팅 방법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과 실습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온라인 진출에 따른 매출 확대를 위한 특강, 멘토링 운영, 판매실습비 등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동반성장위, 동반성장 최고위과정 운영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과 맞춘

동반성장위원회가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과 ‘제4기 동반성장 최고위과정’을 운영한다.

18일 동반위에 따르면 오는 6월21일까지 15주간 진행되는 최고위과정은 매주 금요일마다 운영한다.

동반성장 최고위과정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동반성장 및 ESG

패러다임 이해와 동반성장 자세를 함양한 전문 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4년 연속으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번 제4기 동반성장 최고위과정은 동반성장 및 ESG의 심층적 이해를 돕는 전문 강의와 경영진 이미지 브랜딩, 코칭 대화 등 인문교양 강의, 동반성장 우수기업 현장 방문, 네트워크 워크숍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특허평가시스템 고도화... IP 우수기업 지원



기보, 올 6000억 IP평가보증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자동 특허평가시스템 ‘KPAS II’ 고도화를 통해 지적재산(IP) 우수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약 6000억원 규모의 IP 평가보증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18일 기보에 따르면 기보의 특허평가시스템(KPAS)은 전문평가자의 평가데이터, 평가패턴 등을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및 딥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특허의 평가등급과 가치금액을 자동산출하는 스마트 특허평가시스템이다.

KPAS I (특허등급평가)과 KPAS II (특허가치평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KPAS는 실시간으로 신속한 평가가 가능해 연간 2만건 이상의 특허 평가 보고서가 생성되고 있다. 이는 대학 산학협력단과 공공연구기관 등 28개 협약기관에서 활용도가 높다.

기보는 개별 전문가의 관점과 자동 평가결과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외부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속적으로 KPAS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박사급 인력 300여 명의 평가사례와 노하우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매출 추정을 정교화하는 등 KPAS II의 가치산출 알고리즘을 고도화했으며, 평가자가 개별기업의 재무특성을 선택 반영할 수 있도록 AI 기반 자동산출시스템의 확립성을 보완했다. /김승호 기자